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
도둑맞은 가난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
지난 번 <나목>을 소개했을 때 이 책 이야기가 나와서 읽었습니다.

**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**

-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. 내가 첫 애를 뱃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이구나, 좋을 때 다,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,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로 구해 오게 했다. "잘 생기고, 여물게 굳고,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.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."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.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.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,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.

-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.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,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,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.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갈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.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.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

단편들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여과없이 드러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인 이야기를 듣다보니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해집니다. 산문 <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>, 그리고 딸 호원숙 작가의 <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>도 읽어보려 합니다.